



## 교회 및 지역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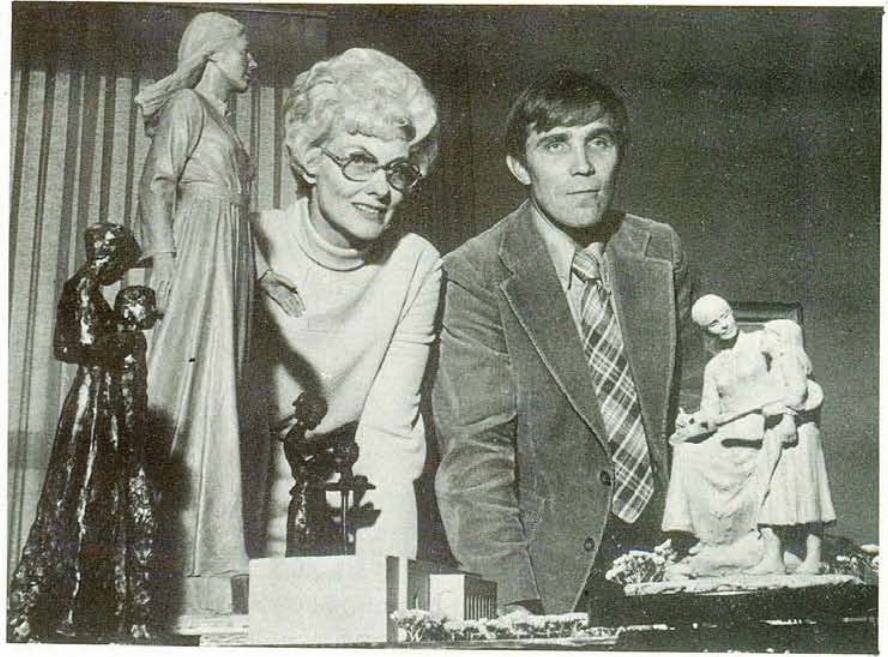
### 상호부조회 기념상

1842년 요셉 스미스는 일리노이주 나부에서 상호부조회를 조직하였다. 바로 이곳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말일성도 여성상을 상징하는 기념상이 상호부조회에 의해 건립된다.

1975년 10월 상호부조회 대회에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바바라 비 스미스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수년간 일어난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 여성사를 돌이켜 보게 해줍니다. 우리는 과거 말일성도 여성들의 훌륭한 공헌을 생각할 때마다 온 마음으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신앙과 용기와 지혜로 남성의 옆에 굳건히 서 있었읍니다. 그들은 박해와 고난을 이겨냈읍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한편 자녀를 키웠으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읍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일하지 않았읍니다. 교회 회원의 공동 목적인 주님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 일했읍니다. 그들은 신전과 집회소를 짓는데 참여했읍니다. 또 일용할 식량을 마련했읍니다. 그리고 간호원과 의료 기술자들을 배출했읍니다. 그들은 병원을 세우고 회원들의 건강을 돌보았읍니다. 또 선교사와 선교 사업을 지원했읍니다. 또한 정치적, 사회적인 대의를 위해 일했읍니다. 그들이 바친 공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읍니다.

"오늘날의 말일성도 여성을 볼 때 우리는 똑같은 감명을 받습니다. 영적인 것 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세계에서 그들은 복음대로 생활하고자 분투하는 용기있는 여성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여성은 주님께서 부여한 여성의 역할을 계속 잊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여성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그들은 지상에 서 부지런하며 지혜롭게 주님의 사업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임 상호부조회의 회장단과 만나 이야기하던



중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읍니다. 대관장단의 승인을 받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말일성도 여성의 이상을 상징하는 기념상을 세우자는 것이었읍니다."

현재 이 기념상의 모형이 이루어졌다. 기념상은 어린 시절에서부터 어머니 시절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역할과 직분을 나타내는 여러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 기념상은 미술가인 데니스 스미스에 의해 나부 방문자 센터의 바로 앞에 세워질 예정이다. 가로 111미터, 세로 73미터의 대지 한 가운데 미풍에 긴 머리와 옷소매가 나부끼며 앞으로 걸어 나아가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실물 크기의 여성의 조각과 그 주위에 독서하는 여성, 기도하는 여성, 봉사하고 도움을 손길을 내어미는 자세의 여성, 조각을 하고 있는 여성 등 4개의 실물 크기의 여성상을 세우게 된다. 다시 좀 떨어진 곳에는 그밖에도 다양한 여성의 역할을 상징하는 여러 조각이 서게 된다.

방문자 센터의 바로 밖에는 요셉 스미스와 초대 상호부조회 회장인 그의 부인 엠마의 상이 세워진다. 이것은 상호부조회의 조직 모임에서 요셉 스미스 대관장이 엠마 회장에게 금화 5불을 기금으로 전해 준 역사적 순간을 묘사하게 된다.

세계에는 약 100만에 이르는 상호부조회 회원이 있다. 이 기념상을 세우는 데는 모든 자매의 성의있는 헌금이 필요하며 모든 헌금자의 이름이 기념상이 있는 곳에 기록으로 남게 된다.

바바라 스미스 자매는 이 기념상을 세우는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상호부조회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성의 역할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이 기념상은 상호부조회 조직 136주년이 되는 1978년 3월에 헌납될 예정이다.

## 낙태에 관한 교회의 성명

낙태에 관한 교회의 정책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대관 장단은 낙태에 관한 성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교회는 낙태를 반대하며, 산모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따르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으로 산모가 심한 정신적인 타격을 받게 될 극히 드문 경우에 유능한 의사의 권고에 따라 행하는 것 이외에는 낙태를 하지 말도록 권고하는 바이다. 그러한 경우이라도 지역 관리 신권 역원의 권고와 기도를 통한 성스러운 확신을 받은 후에 행해져야 한다.

“성적인 부도덕을 유발하는 이완된 상태를 목격하고 있는 오늘날 낙태란 가장 가증스럽고 죄스러운 일 중의 하나로 여겨져야 한다.

“낙태 죄를 범한 회원은 상황에 따라 교회 평의회 의 징계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교리와 성약 59편 6절에서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낙태의 죄는 회개하여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에 속한다.”

## 제 1 회 초등협회 재능 발표회

서울 스테이크 초등협회는 지난 7월 31일, 제 4 와드에서 제 1 회 재능 발표회를 가졌다.

스테이크 산하 각 와드와 지부의 30여명이 참여한 이 재능 발표회에서 어린이들은 무용, 피아노 독주, 바이올린 독주, 기계 체조, 성악, 태권도, 연극 등으로 그들의 숨은 재능을 맘껏 발휘하여 그곳에 모인 150여명의 청중을 저우기 놀라게 하였다.

처음으로 재능 발표회를 시작한 서울 스테이크 초등협회 회장단은 성공적으로 끝낸 이 모임으로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면서, 이번 모임이 전통의 기초로하여 매년 연례 행사로 계속할 것을 기쁘게 다짐하였다.

## 고무통 정원 가꾸기

김볼 대관장님께서서는 교회 회원들에게 정원을 일구고 가능한 한 양식이 될 야채를 가꾸도록 권고하셨다. 이 권고는 한국 성도들에게는 무척 지키기 어려운 권고로 여겨졌다.

그러나 한국 서울 선교부에서는 아주 적은 면적에서도 가꿀 수 있는 정원을 개발하여 이 목표를 달성했다. 선교부 건물 옆에 고무통으로 이루어진 “모형 정원”이 그것이다. 이 4개의 통 속에는 2인분의 토마토, 고추, 호박, 가지가 자라고 있는데 이 통은 수분을 보유하므로 아파트 거주자들도 정원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 서울 스테이크 대회

한국 서울 스테이크 대회가 8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서울 제 4 와드 예배당에서 개최되었다. 십이사도 보조인 애드니 와이 고마쓰 장로의 감리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지역 출신 선교사 배출과 신전 건립과 관련한 성도들의 희생이 강조되었다.

21일 토요일 역원회에서는 경전 활용 계획에 관해 김창선 부장과 김 차봉 감독, 민 순임 자매의 말씀이 있었으며, 곧 이어 거행된 신권 역원회에서는 한국 교회의 발전을 꾀어준 신권 지도자의 희생과 각오에 대한 고마쓰 장로의 영적인 말씀이 있었다.

22일 일요일 총회는 10시에 시작되었으며 이 호남 스테이크 부장, 축복사 김 종균 형제, 유진 피 킬 서울 선교부장, 고마쓰 자매의 말씀을 들었고, 서울 와드에서 준비한 합창을 들은 후 고마쓰 장로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다.

1,000여명이 참석한 이번 대회는 1차로 모임을 마쳐, 예배당에 입장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은 4 와드 숲에 마련된 야외 시설을 이용하였으며, 모두 조용하고 영적인 분위기에서 대회를 끝마칠 수 있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5명의 새로운 장로와 1명의 대제사가 탄생되었다.

## 부산 선교부 선교사

### 미독립 200주년 기념 특별 TV쇼 출연

지난 7월 4일 한국 부산 선교부 소속 선교사 20여명은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KBS(채널 9)망을 타고 한국 전역에 30분간 방영되었다.

부산 선교부의 선교사 20명이 미국 국가와 애국가를 불렀고 이어 방송국 아나운서와 장로들의 대담이 있었으며 선교사들이 찬송가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를 사중창으로 부르고 웬델 라슨 장로가 이 찬송가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고 미국 역사와 미국의 독립 기념일 행사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선교사 합창단이 “이 나라는 여러분의 것”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이 프로그램의 성공은 선교 활동에 큰 도움을 가져왔으며 개설된지 1년밖에 안된 한국 부산 선교부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급성장하는 선교부라는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다.

### 박 지정 자매 피아노 부문 1 위

지난 7월 4일, 서울 스테이크 제 5 와드의 박 지정 자매(장위 국교 5년)는 1976년도 전국 학생 예술 대회 피아노 부문에서 영예의 1위를 획득하였다.

박 자매는 현재 서울 선교부 선교부장단에서 수고하시는 박 재암 형제님의 영애로서, 피아노를 시작한 지는 6년이 되었다.

## 청소년 회를 갖다

서울 스테이크는 판교 신기 국민학교에서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8월 3일부터 6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소년 대회와 청년 회를 각기 가졌다.

올해로 제 3회를 맞은 소년 대회에는 스테이크 산하 각 지부와 와드의 청소년 약 200명이 참여하였다.

스테이크 부장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시작된 소년 회는 신학 세미나, 교양 강좌, 체육, 오락, 경보 대회, 물문경 경시 대회, 무용, 캠프 화이어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가까운 복지 농장에서 가진 일모임은 예년에 없었던 프로그램으로 소년 소녀의 마음에 깊은 간증을 심어 주었다.

소년 대회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열린 청년 회에는 스테이크의 청년 약 80명이 참여하였으며 서로를 이해하면서 젊은이의 지덕체를 향상시킨 좋은 계기가 되었다. 복지 농장 실습, 모의 올림픽, 작곡 대회 등 여러 가지의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청년들은 마지막 날 그들이 스스로 체험한 간증을 나누었던 간증 모임이 가장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서울 선교부의 대전 지방부에서는 8월 2일부터 5일까지, 인천 지방부에서는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청소년 회를 가졌으며, 부산 선교부 산하 부산 지방부서도 8월 3일부터 5일까지 청소년 회를 가졌다.

